

악순환의 시작과 패턴

사사기 2:11-23

2021년 11월 5일

1.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시대의 전반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12 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그대로 남겨 놓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겨 놓은 가나안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우상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신 분이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고, 또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시고 지금까지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알지도 못하고, 눈에 보기 좋은 우상에 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13 절에 우상 숭배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있는겁니까? 바로 그들의 욕심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의 성향이 우상 숭배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이고,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는겁니다.

풍요로운 삶이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풍요는 참된 풍요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죄악이고, 그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2.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 14-15 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 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와 그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5 절에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든지’는 히브리어로 ‘야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주로 전쟁터에 나갈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깐 이제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지금까지 전쟁에서 계속 승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바로 사사를 세우셔서 노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거부해 버립니다.

### 16-17 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와 그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신속하게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길로 향합니다.

하지만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상에 빠져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사를 세우실 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 절 입니다.

**18 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였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신 것은 그들이 대적에게 받는 압박과 괴롭게 함 때문에 슬피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었다고 하니까 그들이 마치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부르짖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9 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9 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다시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원한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김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더욱 타락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은 것은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소리를 지른 것일 뿐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개할 마음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더욱 더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능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18 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재앙을 내려야 마땅하지만,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켜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백성들을 위해 사사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떠한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정말 죄인의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인가?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라고 생각 하지는 않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나 우리나라 오십 보 백보일겁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슬퍼 울 때보다 그저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울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참으로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3.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 그 뒤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방금 읽었던 19 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 19 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앞서 17 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그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즉 속히 타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상으로 너무 빨리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19 절에서는 “**더욱 타락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깐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빨리, 더욱 악하게 타락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나마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다가, 사사가 죽고, 그 세대가 죽으니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안면몰수를 하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죽고 난 뒤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아직도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되어버리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없고, 교육이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20-21 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 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앞서 15 절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20 절, 21 절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 이방 민족을 다시는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의 걸림이 됩니다.

## 22-23 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와 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지 아니하셨더라”**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남겨 두신 이유가, 이방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범죄할 때, 남겨진 이방 민족으로 시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겁니다.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욕심 때문에 너희가 남겨 두었으니, 나도 그들을 결단코 쫓아내지  
않겠다.’

도리어 그들을 너희 범죄에 대한 징계의 도구, 시련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악순환의 시작과 패턴’ 입니다.

악순환은 나쁜 현상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역사는 범죄와 징계, 회개와 회복, 하지만 다시 범죄라는 이 나쁜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걸까요?

왜 이런 이 나쁜 현상이 반복되는걸까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욕심 때문에 어긴 것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욕심을 완전하게 버리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욕심으로 인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야고보서 1 장 15 절에는 욕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스라엘의 욕심은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아스다롯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받고 회복을 경험했던 세대가 그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것을 온전히 자식들에게 전달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입니다.

4.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사사시대를 살고있는 것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줍니다.

우리는 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래서 죄에 쉽게 넘어지는 우리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닌 아파서 내는 울음조차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다음세대를 위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세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다음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바르게 남기기 위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음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주시기를 오늘도 간구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음세대를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